

고시기획

www.gosiplan.com

NEWS

박문각 1라 캠퍼스가 함께하는
2022 박문각 공무원 직렬 별 합격 필승 설명회
 장소 : 노랑진 이태아빌딩 대강의실
 / 참석만 해도 100% 선물 증정 / 신라호텔 뷔페 이용권 / 아이패드 & 에어팟프로 / NET Class & 유튜브 생방송 LIVE

7월
매주 토요일

2021년 지방직 9급 합격선 현황은?

서울시 등 총 16개 지역 합격선 발표 완료 ... 향후 일정 확인해야

【 2021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시·도별 필기시험 합격선 】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서울시	385.94점(양성 385.82점)	부산시	389.19점	전라남도	386.19점(최고점)
경기도	392.78점(최고점)	울산시	388.28점(양성 387.1점)	전라북도	390.74점(최고점)
인천시	382.5점(최고점)	강원도	392.37점(최고점)	경상남도	400.97점(최고점)
대전시	382.77점	충청남도	392.91점(최고점)	경상북도	389.07점(최고점)
대구시	7월15일 발표 예정	충청북도	387.23점(최고점)	제주도	407.20점(최고점)
광주시	385.90점	세종시	382.32점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7월14일 현재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과 합격선이 발표됐다.

수험생들은 응시한 지역의 합격선 및 면접시험 일정 등 향후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9급 일반행정 '385.94점'**

올해 서울시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은 385.94점(양성 385.82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은 385.75점을 기록한 바 있어 올해 합격선은 전년대비 상승했다.

서울시는 7월22~24일, 8월16일~9월6일까지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7월30일, 9월29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충청남도**

충청남도도 올해 지방직 9급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을 공개했다.

9급 일반행정직 합격선을 살펴보면 91명을 선발하는 천안시가 383.12점을 기록했으며 50명을 채용하는 아산시 합격선은 370.38점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산시로 392.91점을 기록했다.

***부산시**

부산시 제1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41명으로 집계됐다.

각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9급 일반행정 389.19점 ▲9급 지방세 388.85점 ▲9급 사회복지 346.89점 ▲9급 전산 85점 ▲9급 사서 368.29점 (이상 일반 기준) 등이다.

부산시 면접시험은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7월20일에 실시하며 ▲그 외 직렬 8월10~17일까지 치른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9급 일반행정 시·군별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146명을 선발하는 청주시 합격선이 387.23점(양성 385.11점)을 기록했으며 57명을 채용하는 충주시는 373.72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울산시 제2회 지방공무원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9급 일반행정 388.28점(양성 387.1점) ▲9급 지방세 394.97점 ▲9급 사회복지 358.09점(양성 347.31점)

(이상 일반 기준)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채용 일정은 ▲면접서류 등록 7월16일 ▲면접시험 8월10~11일 ▲최종 합격자 발표 9월3일이다.

***제주도**

제주도도 제3회 지방공무원 합격선을 공개했다.

9급 일반행정 합격선은 ▲도 407.20점 ▲제주시 399.07점 ▲서귀포시 402.38점(양성 399.78점)을 각각 기록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 제1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639명이다.

9급 일반행정에서는 포항시가 389.07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으며 울릉군이 296.46점으로 가장 낮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강원도**

강원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지역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원주시 386.59점 ▲강릉시 378.67점 ▲평창군 321.41점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세종시도 올해 9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을 살펴보면 ▲9급 일반행정 382.32점 ▲9급 지방세 359.89점 ▲9급 사회복지 382.77점 (이상 일반 기준)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세종시 향후 채용 일정은 ▲면접시험 7월21일, 28~30일 ▲최종 합격자 발표 8월10일이다.

공무원 합격은 박문각에서!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접수 중

9급 2021. 07. 18(일)
7급 2021. 07. 25(일)

GMG 박문각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현장강의+온라인 All Pass+전용학습관

7월 5일(월) 개강

박문각 스파르타

실강반, 기숙연계반

최대 53% 할인 이벤트

박문각 ▶ NETclass

LIVE 스트리밍 강의 & 캠퍼스 학습관

오픈기념무료

바로 들고 바로 질문하고 바로 해결한다!

GMG 박문각

다음호 고시기획 신문은 7월29일(목) 발행됩니다.

- 명칭 : (주)에듀스파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0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랑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수험서/자격증 전문 도서 쇼핑몰

박문각 북스파

검색창에 **북스파** 로 검색해 보세요~!

- 9·7급 공무원
- 경찰 공무원
- 임용 고시
- 공인 중개사
- 각종 자격증

2021년 교육청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 이어져

【 2021년 경기도·울산시·대전시·서울시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선 】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경기도 남부	387.54점(양성 382.54점)	울산시	398.03점(양성 394.87점)
경기도 북부	382.30점(양성 380.79점)	대전시	393.51점
서울시	399.78점(양성 394.68점)		

2021년 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8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청은 면접시험을 통해 총 728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9급 교육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선은 ▲남부 387.54점(양성 382.54점) ▲북부 382.30점(양성 380.79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9급 사서 370.18점

(양성 367.75점) ▲9급 전산 415점 ▲9급 일반기계 350점 ▲9급 일반전기 360점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은 7월31일 면접시험을 치른 뒤 8월18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 할 예정이다.

2021년 울산시 교육청 각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9급 교육행정 398.03점(양성 394.87점) ▲9급 사서 370.14점 ▲9급 전산 395점 ▲9급 일반기계 340점 등이다.

울산시 교육청 향후 채용 일정

은 ▲면접시험 7월24일 ▲최종 합격자 발표 8월3일이다.

대전시 교육청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을 살펴보면 ▲9급 교육행정 393.51점 ▲9급 전산 360점 ▲9급 건축 290점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전시 교육청은 7월23일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 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도 필기시험 합격자 총 573명을 발표했다.

각 직렬별 합격선은 ▲9급 교육행정 399.78점(양성 394.68점) ▲9급 전산 415점 ▲9급 사서 387.62점(양성 386.02점) ▲일반기계 305점 등으로 나타났다.

【포토뉴스】 국가직 7급 필기시험 실시



▲ ‘시험 합격을 향하는 발걸음’ (장소: 서울 서운중학교)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지난 10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필기시험은 시험제도 변경 첫 해로 과목별 난이도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인사혁신처는 7월19일 이번 필기시험의 최종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8월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충남·충북 9급 합격선 현황은?

【 2021년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 】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천안시	383.12점	논산시	384.92점	서천군	363.42점
공주시	372.07점	계룡시	370.11점	청양군	356.96점
보령시	358.09점	당진시	372.74점	홍성군	371.18점
아산시	370.38점	금산군	376.59점	예산군	379.76점(양성 375.54점)
서산시	392.91점	부여군	351점	태안군	370.30점

【 2021년 충청북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 】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청주시	387.23점(양성 385.11점)	옥천군	364.01점	괴산군	372.25점
충주시	373.72점	영동군	363.15점	음성군	379.42점
제천시	365.84점	증평군	378.51점	단양군	349.42점
보은군	378.61점	진천군	377.83점	충청북도	379.55점

2021년 충청남도 제1회 공개 경쟁 합격선이 공고됐다.

각 시·군별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서산시가 392.9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365.67점 ▲천안시 383.12점 ▲공주시 372.07점 ▲보령시 358.09점 등

을 각각 기록했다.

충청북도도 제1회 공개경쟁 합격선을 발표했다.

146명을 선발하는 청주시가 387.23점(양성 385.11점)을 기록했고 73명을 채용공고 한 충청북도 모집 합격선은 379.55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지역별 선발인원은?

총 2천248명 선발 ... 원서접수 7월19일까지 실시 예정

【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지역별 채용인원 】

지역	일반(남)	일반(여)	지역	일반(남)	일반(여)
서울	418명	158명	강원	103명	38명
부산	73명	28명	충북	36명	13명
대구	28명	11명	충남	100명	38명
인천	56명	21명	전북	64명	24명
광주	17명	6명	전남	100명	38명
대전	28명	10명	경북	117명	44명
울산	14명	5명	경남	90명	34명
경기남부	211명	80명	제주	23명	9명
경기북부	68명	25명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공고문이 발표됐다.

이번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3개분야 총 2천248명으로 집계됐다.

일반(남) 채용인원은 1천546명이며 일반(여) 선발인원은 582명이다. 참고로 101경비단 선발예정인원은 120명이다.

각 지역별 채용인원은 ▲서울

696명 ▲부산 101명 ▲대구 39명 ▲인천 77명 ▲광주 23명 ▲대전 38명 ▲울산 19명 ▲경기남부 291명 ▲경기북부 93명 ▲강원 141명 ▲충북 49명 ▲충남 138명 ▲전북 88명 ▲전남 138명 ▲경북 161명 ▲경남 124명 ▲제주 32명 이다.

원서접수는 7월19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8월21일에 치러진다.

향후 채용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27일 ▲신체·체력·적성검사 9월23~10월29일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8~12일 ▲면접시험 11월22~12월14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17일이다.

2022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 합격자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하는 박문각의 진짜 학습관리 "

<p>성적관리</p> <p>과목별 성적비교로 나의 위치 및 강·약점 분석</p>	+	<p>해설강의</p> <p>명불허전 박문각 교수진의 알찬 무료 해설강의</p>	+	<p>합격예측</p> <p>전국 응시생대비 직렬별 성적비교를 통해 합격 가능성 예측</p>	+	<p>오답노트</p> <p>오답노트로 관리하는 과목별 약점 영역</p>
---	---	--	---	---	---	--

* 박문각공무원 스마티타, 가속인기반을 수강한 60명 중 40명 기준(2020년 국가직 필기/지방직 최종합격자)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시행
2021. 07. 18(일)
오전 10:00

응시 직렬

일반행정
세무
교육행정
기술직

합격을 위! 최고 강사진의 강의!

박문각 올패스



공무원 / 공인중개사 / 경찰 / 편입
임용 / 법무사 / 감평사 / 전문자격

★★★ 김제시 '공무원 준비반' 67명 중 26명 공무원 합격	★★★ 공무원 'TS반 수강생' 30명 중 24명 공무원 합격	★★★ 법무사 6년 연속 수석/최다 합격	★★★ 감정평가사 3년 연속 수석/최다 합격	★★★ 교원임용 최고/최대 합격률 및 직종률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1회 시험부터 최초 합격자 배출	★★★ 경찰공무원 47% 수강생 2차 필기합격	★★★ 편입 '서성한반' 2년 연속 100% 합격신화
---	---	---------------------------------	-----------------------------------	-----------------------------------	--	------------------------------------	--

박문각만의 '특별 혜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1. 연 단위 올패스 상품을 월 결제로 부담없이 수강!**
(예: 1년 72만원 올패스 상품을 월 6만원 에 무제한 수강)
- 2. 연 단위 올패스 상품을 기간 별로 더 저렴하게 수강!**
(예: 1년 구매 시 40%, 9개월 구매 시 30% 파격할인 제공)
- 3. 공무원/경찰 올패스 구매 시 온라인모의고사(일일,주간,월간) 무료제공!**
- 4. 올패스 최대 43% 할인! 구매 시 10,000원 추가혜택!** (할인 5천원 & 적립 5천원)



올패스 구매하는 방법

- 1 핸드폰으로 각 지점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 2 구매 상품 선택하고 지점 코드(포스터에 표기) 입력 후 결제**
(임용 구매시에는 지점에서 별도 구매코드를 받아서 입력)



제3회 전라북도 지방직9급 신규채용 종료

전라북도는 2021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 합격자 총 1천194명으로 당초 발표한 선발예정인원 1천320명 보다 126명 줄어든 인원이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7월14일부터 28일까지 15곳의 임용기관에서 진행된다. 참고로 임용기관별 등록기관(도 및 시

군) 및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본인이 직접 임용예정기관을 방문해 제출 등록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반명합관 사진 2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이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21일까지

2021년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이번 면접시험 응시대상은 총 532명으로 서울시는 면접시험을 통해 통 364명을 최종 선발 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서울시소방학교 본관 4~5층에서 실시되며 신분증, 응시표, 마스크,

필기구를 지참해야 한다. 각 채용분야에 따라 면접시험 일정이 다르므로 응시생들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소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을 8월31일 소방청, 119고시, 서울시 소방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된다.

경상북도 9급 일반행정 합격선은?

【 2021년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 】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지역	합격선
경상북도	386.62점	영주시	374.60점	의성군	365.68점	성주군	374.60점
포항시	389.07점	영천시	383.96점	청송군	367.59점	칠곡군	387.42점
경주시	383.81점	상주시	381.33점	영양군	363.06점	예천군	355.45점
김천시	379.68점	문경시	386.93점	영덕군	369.35점	봉화군	327점
안동시	387.42점	경산시	376.50점	청도군	379.69점	울진군	336.46점
구미시	388.91점	군위군	378.81점	고령군	363.46점	울릉군	296.46점

경상북도는 지난 6월5일 치러진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합격선을 발표했다. 이번 경상북도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622명으로 집계됐다. 86명을 선발하는 구미시 합격선이 388.91점으로 나타났고 54명을 채용하는 포항시 합격선은 389.07점을 기록했다. 반면 합격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으로 296.46점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간호·보건직 7월12~14일 ▲그 외 전 직렬 7월13~15일까지 경북도청 동라관 세미나실(1층)에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제출하면 된다. 향후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인성검사 7월21~23일 ▲면접시험 ▲간호·보건직 7월19~20일 ▲그 외 전 직렬 8월2~27일 ▲최종합격자 발표 ▲간호·보건직 7월30일 ▲그 외 전 직렬 9월9일이다.

99% 적중률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유명 학습관 제휴, 공급



토즈, 르하임, 공부인, 디플레이스, 비허밍, 스테디고, 아카데미라운지, 어라운드, 영광독서실, 위넨, 지니24, 초심, 커피랑도서관, 포커스, 포텐, 플랜에이, 다올, 공간샘, 하우스터디, 화이트펜슬, 잇을 스파르타, 꿈꾸는공간, 이끌림, 빅스, 타임유, 시작, 프레쉬스터디카페 등 전국 2,000여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AI데이터 기반 분석 문제 단계별 실시
수험교육 전문기업 박문각은 지난 3월부터 공무원 합격예측의 99% 정확도를 자랑하는 모의고사 서비스를 박문각 남부, 종로, 강남 공무원 직영 학원과 학습관에 이은 제휴 업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출제 위원급 75명의 박문각 공무원 교수진이 엄선한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AI시스템이 분석하여 최신 유형의 적중 예상 문항을 추출한 후 6회 이상의 합격전략 연구소 검수를 거쳐 최종 출제된다. 본 모의고사는 ▲영어 일일 모의고사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합격예측 전국 월간 모의고사를 3단계 구성으로 실시한다.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실전 감각 및 적응력이 극대화되기에 빠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공무원 합격에 이르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다각적 학습 지원 기능 제공
이 외에도,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을 통하여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답안입력 ▲성적관리 ▲동영상 해설강의 ▲1:1 상담 등 다양한 피드백 시

스템이 제공되며, 박문각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학습지원 솔루션 AI확인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학습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99% 합격예측 적중률 체계적 합격 전략 가능
특히,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수강생이 선택한 직렬 별 최근 3개년 경쟁률 및 합격 커트라인을 반영하여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정확도로 체계적인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과목 및 영역별 전국 단위 응시자들과 성적을 비교하여 수험생의 명확한 위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문각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박문각 직영 학원 및 학습관에 한해 운영되던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토즈, 르하임, 하우스터디,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프리미엄독서실, 영광독서실' 등 제휴업체 지점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확대 시행되는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통해 빠른 성적 향상과 실전 감각 체득을 통해 소망하는 공무원 합격을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 제휴 학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이론편]

합격, 박문각 공무원 기본 교재

김재준 편저 13,000원

300여 페이지로
단권화와 대화독이 가능

수험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체계적 구성

주요 기출 2,000제와
행정학 관련 법령 모두 반영

노랑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PMG 박문각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신청지점 직배송



#공무원 #소방직 #경찰

지금 전국 2,000여 개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지점에서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D PLACE	영광독서실	하우스터디
	plan A	
		박문각과 제휴 학습관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2020-2021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 ③ 전라남도 채용인원 감소에도 경쟁률 및 응시율 상승세 기록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고시기획』은 2020-2021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을 총 정리해본다.

【 2020-2021년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 】

구분	선발예정인원		경쟁률		응시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목포시	12명	27명	11.25대 1	7.81대 1	73.3%	82.46%
여수시	40명	7명	5.75대 1	13.43대 1	81.3%	68.09%
순천시	6명	10명	9.5대 1	13대 1	75.4%	73.85%
나주시	8명	6명	13.38대 1	12.67대 1	57.9%	72.37%
광양시	21명	3명	5.86대 1	15.33대 1	78%	80.43%
담양군	-	2명	-	5.50대 1	-	81.82%
곡성군	3명	3명	9.33대 1	7.67대 1	64.3%	86.96%
구례군	2명	3명	8대 1	13.33대 1	81.3%	87.50%
고흥군	6명	10명	7.83대 1	8.30대 1	89.4%	80.72%
보성군	9명	2명	4.89대 1	5대 1	70.5%	80%
화순군	-	5명	-	10.60대 1	-	83.02%
장흥군	-	3명	-	6.67대 1	-	85%
강진군	7명	9명	5.57대 1	9.78대 1	79.5%	86.36%
해남군	9명	7명	8.22대 1	7.71대 1	78.4%	87.04%
영암군	9명	4명	9.33대 1	4.75대 1	76.2%	89.47%
무안군	-	2명	-	5대 1	-	80%
함평군	2명	3명	15대 1	5.33대 1	50%	81.25%
영광군	9명	4명	7.89대 1	9.50대 1	81.7%	81.58%
장성군	2명	3명	29대 1	8.33대 1	44.8%	88%
완도군	1명	1명	10대 1	15대 1	60%	73.33%
진도군	5명	2명	4.8대 1	10대 1	75%	80%
소계	151명	116명	7.79대 1	9.33대 1	73.7%	80.13%

*선발인원 151명→116명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공무원 151명을 선발 공고 했었다.

각 시·군별 선발인원은 ▲목포시 12명 ▲여수시 40명 ▲순천시 6명 ▲나주시 8명 ▲광양시 21명 ▲곡성군 3명 ▲구례군 2명 ▲고흥군 6명 ▲보성군 9명 ▲강진군 7명 ▲해남군 9명 ▲영암군 9명 ▲함평군 2명 ▲영광군 9명 ▲장성군 2명 ▲완도군 1명 ▲진도군 5명을 각각 선발했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총 116명으로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40명을 선발했던 여수시가 올해 7명 선발에 그쳤고 광양시도 2020년 21명 채용에서 2021년에는 3명으로 채용인원이 줄었다.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감소한 지역은 나주시,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진도군 등이다.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무안군은 지난해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선발인원을 공고했다.

이밖에 ▲목포시 27명 ▲순천시 10명 ▲나주시 6명 ▲담양군 2명 ▲곡성군 3명 ▲구례군 3명 ▲고흥군 10명 ▲보성군 2명 ▲화순군 5명 ▲장흥군 3명 ▲강진군 9명 ▲해남군 7명 ▲영암군 4명 ▲무안군 2명 ▲함평군 3명 ▲영광군 4명 ▲장성군 3명 ▲완도군 1명 ▲진도군 2명을 각각 선발 할 예정이다.

*경쟁률 7.79대 1→9.33대 1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7.79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평균 경쟁률은 9.93대 1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우선 지난해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면 장성군이 2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함평군이 15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목포시 11.25대 1 ▲여수시 5.75대 1 ▲순천시 9.5대 1 ▲나주시 13.38대 1 ▲광양시 5.86대 1 ▲곡성군 9.33대 1 ▲구례군 8대 1 ▲고흥군 7.83대 1 ▲보성군 4.89대 1 ▲강진군 5.57대 1 ▲해남군 8.22대 1 ▲영암군 9.33대 1 ▲영광군 7.89대 1 ▲완도군 10대 1 ▲진도군 4.8대 1 등을 각각 기록했었다.

2021년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시·군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 7.81대 1 ▲여수시 13.43대 1 ▲순천시 13대 1 ▲나주시 12.67대 1 ▲광양시 15.33대 1 ▲담양군 5.50대 1 ▲곡성군 7.67대 1 ▲구례군 13.33대 1 ▲고흥군 8.30대 1 ▲보성군 5

대 1 ▲화순군 10.60대 1 ▲장흥군 6.67대 1 ▲강진군 9.78대 1 ▲해남군 7.71대 1 ▲영암군 4.75대 1 ▲무안군 5대 1 ▲함평군 5.33대 1 ▲영광군 9.50대 1 ▲장성군 8.33대 1 ▲완도군 15대 1 ▲진도군 10대 1이다.

광양시가 15.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완도군이 15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등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5.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13.43대 1로 상승했고 진도군은 2020년 4.8대 1에서 2021년 10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특히 광양시는 지난해 5.86대 1에 그쳤으나 올해 원서접수 결과 15.33대 1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년대비 경쟁률이 하락한 지역은 목포시, 나주시, 곡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5.33대 1로 낮아졌고 장성군은 2020년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올해 원서접수 결과 8.33대 1로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

*응시율 73.7%→80.13%

2020년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73.7%로 나타났다.

40명을 선발하는 여수시 응시율이 81.3%를 기록했으며 21명을 채용공고 한 광양시 응시율은 7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목포시 73.3% ▲순천시 75.4% ▲나주시 57.9% ▲곡성군 64.3% ▲구례군 81.3% ▲고흥군 89.4% ▲보성군 70.5% ▲강진군 79.5% ▲해남군 78.4% ▲영암군 76.2% ▲함평군 50% ▲영광군 81.7% ▲장성군 44.8% ▲완도군 60% ▲진도군 75% 등을 각각 기록했다.

필기시험 응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장성군으로 44.8%에 그쳤고 고흥군이 89.4%로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2021년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80.13%로 전년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암군으로 89.47%로 나타났으며 장성군이 88%의 응시율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시·군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 82.46% ▲여수시 68.09% ▲순천시 73.85% ▲나주시 72.37% ▲광양시 80.43% ▲담양군 81.82% ▲곡성군 86.96% ▲구례군 87.50% ▲고흥군 80.72% ▲보성군 80% ▲화순군 83.02% ▲장흥군 85% ▲강진군 86.36% ▲해남군 87.04% ▲무안군 80% ▲함평군 81.25% ▲영광군 81.58% ▲완도군 73.33% ▲진도군 80%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응시율이 상승한 지역은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57.9%의 응시율에서 올해 72.37%로 상승했고 곡성군도 2020년 64.3%에서 2021년 86.96%로 응시율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함평군은 지난해 응시율이 50%에 그쳤으나 올해 필기시험 실시 결과 81.25%로 응시율이 급등했다.

*각 지역별 합격선 현황은?

2020년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지역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 343.19점(양성 339.08점) ▲여수시 333.60점 ▲순천시 345.18점 ▲나주시 338.13점(양성 327.91점) ▲광양시 326.11점(양성 323.89점) ▲곡성군 328.55점 ▲구례군 312.51점 ▲고흥군 332.15점 ▲보성군 308.27점 ▲강진군 312.51점 ▲해남군 331.89점 ▲영암군 342.27점 ▲함평군 341.15점 ▲영광군 345.39점 ▲장성군 365.83점 ▲완도군 313.77점 ▲진도군 292.07점을 각각 기록했었다.

2021년 전라남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시·군별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목포시 344.79점(양성 338.67점) ▲여수시 355.53점 ▲순천시 348.27점(양성 346.91점) ▲나주시 347.79점 ▲광양시 356.05점 ▲담양군 328.04점 ▲곡성군 343.73점 ▲구례군 370.21점 ▲고흥군 350.20점(양성 343.17점) ▲보성군 290.51점 ▲화순군 353.83점 ▲장흥군 314.11점 ▲강진군 347.93점 ▲해남군 330.85점 ▲영암군 308.63점 ▲무안군 351.35점 ▲함평군 344.63점 ▲영광군 347.87점 ▲장성군 332.07점 ▲완도군 336.83점 ▲진도군 305.80점으로 나타났다.

박문각 공무원

2022년 공무원 합격을 위한 최상의 선택!

박문각 공무원

직렬별 합격 필승 설명회

합격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합격을 향한 전략 싸움의 필승법 제시!



설명회 일정

박문각 YouTube 동시시청 가능!

박문각 대표 교수진이 함께하는 50년 합격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설명회 장소 : 박문각 이데아빌딩 (노량진로 146)

N 박문각 YouTube

7/17 토	16:00	세무직	세법 김용민/회계학 신은미
7/24 토	14:00	외인구단팀	행정학 최육진
7/27 화	14:00	교정직	교정학 이준
7/31 토	14:00	외인구단팀	행정법 김정일/영어 이영신/ 국어 천지현/행정학 최육진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국어(A형) 기출문제 해설(6)

| 강세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감을 들고 이 겉푸른 ㉠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데 있다.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감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열린다. 수박은 천지 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앗'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 빨간색으로 바뀐다. 한 번의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이 세상에 오직 수박 뿐이다. 초록의 껍질 속에서, ㉢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나고, 나타나서 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돈과 밥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시 흥부의 박이다.

- 김훈, 「수박」에서 -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① [출제영역] [문학] > 현대 문학 > 현대 산문 > 내용상의 이해

[해설] 공통된 대상과 차이가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맥락을 읽어가면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나 이들을 가르는 '기준'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다. ㉠~㉣은 '수박'의 바깥과 속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정답을 ①로 보아야 한다. ㉠만이 '겉푸른 외관'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 ㉢, ㉣은 모두 붉은 속을 가리킨다. '빨간, 선홍색의 바다'는 색깔로 파악이 되지만, ㉣은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16. (가)~(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항, 이조년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항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가)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다)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말로 된 문학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항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 ① | 그런데 | 게다가 | 그렇지만 | 그러나 |
| ② | 그런데 | 그리고 | 그래서 | 또는 |
| ③ | 그리고 | 그러나 | 하지만 | 즉 |
| ④ | 그래서 | 더구나 | 따라서 | 하지만 |

[정답] ① [출제영역] [독서] > 인물 > 접속사 추론

[해설] 접속사는 두 문장 간의 맥락을 고려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를 잡은 후에 접근해야 빠르게 풀린다.

(가): '정철, 윤선도, 이항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다음의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보면, 두 맥락이 화제가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어주는 '그리고'라든가, 인과를 설명해야 하는 '그래서'와 같은 내용보다 '그런데'와 같이 화제를 전환해주는 접속사가 가장 적절하다.

(나): 바로 그 다음으로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는 내용을 읽어야 하는데, 이들은 원래 한글로 소설을 쓰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므로, 앞의 맥락에 첨언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게다가', '더구나'와 같은 접속사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리고'는 대체로 대등적으로 논리가 진행될 때 주로 쓰는 편인데, '소설까지'의 '까지'가 덧붙는 의미라서 '그리고'보다 '게다가, 더구나'가 의미에 부합한다.

(다): 바로 그 다음으로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내용은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역접의 의도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가 가장 자연스럽다.

(라): 해당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 '마지막'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다. '양반들은 대다수가 한글을 모를 수도 있고, 박지원도 한문으로 작품을 썼다'는 내용과 달리 (라) 이후에는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 이항,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은 한글을 알고 썼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나, 하지만'과 같이 앞의 상황과 반대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그런데, 게다가, 그렇지만, 그러나'가 있는 ①이 정답이다.

17. (가)~(라)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 (나)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 (라)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 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 ① (가):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다'로 고쳐 쓴다.
- ② (나): '지양'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으로 고쳐 쓴다.
- ③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 ④ (라): '납부'는 맥락상 금융 기관이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이는 '수납'으로 고쳐 쓴다.

[정답] ④ [출제영역] [문법과 어문 규정] > 심화문법 > 문장 고치기

[해설] 해당 문제는 조건에 따라 문장을 판단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를 보고 문장을 보면 된다. 그런데, (라)는 어휘가 '납부'가 아닌 '수납'으로 고쳐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납부'가 맞기 때문에 '수납'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수납하다'는 세금을 수납하다와 같이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이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 기관에 내는 입장을, 그것도 공금을 내는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납'이 아닌 '납부'로 써야 한다. '납부하다'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다.'란 의미를 지닌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현재'를 보고 시제가 틀렸음을 예측해야 하는데, 선지에서 이미 '있었다'라는 글자와 '시제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분석하면 된다. '현재 ~ 보건소가 있다.'로 고치는 것이 알맞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② '지양'과 '지향'은 의미가 서로 반대된다. (나)의 맥락은 '누구나 행복한 ~ 시'와 같이 희망하는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지양하다'가 아니라 '지향하다'로 고쳐야 한다.
- ③ (다)의 '지난달 수해로 인한'의 결과가 '준비 기간'인 것은 아니므로, 인과가 뚜렷하게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와 같이 고쳐야 한다.

18.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서연: 여보게, 동연이.
동연: 왜?
서연: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랬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걸세.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네 의식도 없는가?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동연: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서연: 의심이 없다니.....?
동연: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서연: 음.....
동연: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 있는 탕화를 가리키며) 자넨 얼마나 형상 공부했는가? 이 십일면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열한 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 봤었는가?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현화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서연: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
-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에서 -

- ① 불상 제작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다.
- ②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 ③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 ④ 동연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정답] ③ [출제영역] [문학] > 현대 문학 > 현대 산문 > 내용상의 이해

[해설] 극은 서연과 동연의 대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둘은 '부처님 형상'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에 잘못 이해한 것은 바로 ③이다. 서연의 말을 보면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이라며 외형에 대해 지적을 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③이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① '서연'은 이미 만들어진 불상에 대해 의심을 하는 입장이고, '동연'은 이미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둘의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 ② '서연'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형상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동연과 서연의 대화'를 보면 예술에 있어서 만들어진 것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를 외관 또는 외형이라고 하고 후자를 내면 또는 내용이라고 한다. 특히 마지막 서연의 말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가?'라는 내용에서 형태와 마음을 달리 쓴 것을 알 수 있고, 동연은 형태에, 서연은 마음에(또는 내용에) 집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전공자의 급이 다른 강의로 합격 완성!

세무직 전담팀



국어 강세진

영어 진가영

세법 김용민

회계학 신은미

한국사 박기훈

세무직 종합반 시간표						
	일	화	수	목	금	토
오전 (10:00~13:00)	영어(진가영)	국어(강세진)		국어(강세진)	영어(진가영)	
오후 (14:00~17:00)	세법(김용민) (14:00~17:50)	세법(김용민) (14:00~17:50)	회계학(신은미) (14:00~17:50)	회계학(신은미) (14:00~17:50)	한국사(박기훈)	한국사(박기훈)

*국영한 : 일행 단기합격팀과 공통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영어 기출문제 및 해설(5)

| 김세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4. 다음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There was no divide between science, philosophy, and magic in the 15th century. All three came under the general heading of ‘natural philosophy’. ①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natural philosophy was the recovery of classical authors, most importantly the work of Aristotle. ② Humanists quickly realized the power of the printing press for spreading their knowledge. ③ At the beginning of the 15th century Aristotle remained the basis for all scholastic speculation on philosophy and science. ④ Kept alive in the Arabic translations and commentaries of Averroes and Avicenna, Aristotle provided a systematic perspective on mankind’s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Surviving texts like his *Physics*, *Metaphysics*, and *Meteorology* provided scholars with the logical tools to understand the forces that created the natural world.

[정답] ②

[해설]

주어진 지문은 15세기 자연철학 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영향력에 관한 내용의 글이므로 ② ‘인문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식확산을 위한 인쇄기의 힘을 빠르게 깨달았다’는 전체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해석]

15세기에는 과학, 철학, 마술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자연철학’의 일반적인 주제 아래에 있었다. 고전주의 작가들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의 복원은 자연철학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식확산을 위한 인쇄기의 힘을 빠르게 깨달았다.) 15세기 초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과학의 모든 학문적 추측의 기초가 되었다. Averroes와 Avicenna의 아랍어 번역과 논평을 주도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세계와 인류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했다. 그의 <물리학>, <형이상학>, <기상학> 같은 살아남은 원문들은 학자들에게 자연계를 창조한 힘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도구들을 제공했다.

[어휘]

divide ① 나누다, 쪼개다 ② 구별, 차이(점)	general 일반적인	heading 주제, 제목
recovery 회복, 복원	humanist 인문주의자	printing press 인쇄기
scholastic 학문적인, 학술적인	speculation 추측	Arabic 아랍의
translation 번역	commentary 논평	systematic 체계적인
perspective 관점, 시각	mankind 인류	physics 물리학
metaphysics 형이상학	meteorology 기상학	scholar 학자
logical 논리적인		

15.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Fire following an earthquake is of special interest to the insurance industry.
- ② Word processors were considered to be the ultimate tool for a typist in the past.
- ③ Elements of income in a cash forecast will be vary according to the company’s circumstances.
- ④ The world’s first digital camera was created by Steve Sasson at Eastman Kodak in 1975.

[정답] ③

[해설]

- ③ 동사 be와 동사 vary는 겹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be vary는 be various나 vary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주어 Fire이므로 단수동사 is의 사용은 어법상 적절하고 또한 following뒤에 의미상 목적어(earthquake)가 있으므로 능동형 태역시 어법상 옳다. 또한 'of + 추상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므로 be동사 뒤에 사용가능하다.
- ② 인지동사 consider의 수동태구문으로 목적격보어지리에 to부정사의 사용은 어법상 적절하고 과거표시 부사구 in the past가 있으므로 과거동사 were의 사용 역시 어법상 옳다.
- ④ 주어가 단수명사(camera)이므로 단수동사 was의 사용은 어법상 적절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역시 어법상 옳다. 또한 과거연도 1975년이 있으므로 과거시제의 사용 역시 어법상 적절하다.

[해석]

- ① 지진 후에 따른 화재는 보험업계에 특별한 관심이 된다.
- ② 워드 프로세서는 과거에 키보드 사용자에게 최고의 도구로 여겨졌다.
- ③ 현금 예측의 소득 요인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④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1975년 Eastman Kodak에서 Steve Sasson이 만들었다.

[어휘]

earthquake 지진	insurance 보험	industry 업계
---------------	--------------	-------------

ultimate 최고의, 궁극의
circumstance 상황

element 요소, 요인

forecast 예상, 예측

16.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slowing of China’s economy from historically high rates of growth has long been expected to _____ growth elsewhere. “The China that had been growing at 10 percent for 30 years was a powerful source of fuel for much of what drove the global economy forward”, said Stephen Roach at Yale. The growth rate has slowed to an official figure of around 7 percent. “That’s a concrete deceleration”, Mr. Roach added.

- ① speed up
- ② weigh on
- ③ lead to
- ④ result in

[정답] ②

[해설]

주어진 지문은 높은 성장률에 있던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로인해 다른 곳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압박하다’이다.

[해석]

역사적으로 높은 성장률에 있던 중국의 경제 둔화는 다른 곳의 성장을 오랫동안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30년 동안 10퍼센트 성장률을 지속해 온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강력한 연료 공급원이었다.”라고 Yale대의 Stephen Roach는 말했다. 성장률은 공식적인 수치로 약 7% 정도 낮아졌다. “그것은 실제 하는 감속이다.”라고 Roach씨는 덧붙였다.

[어휘]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rate ① 평가하다 ② 속도 ③ 비율	source 원천, 근원
forward 앞으로	official 공식적인	figure ① 인물 ② 숫자 ③ 모습, 형상
concrete 실제 하는, 구체적인	deceleration 감속	speed up 속도를 더내다, 가속하다
weigh on (무거운 짐이 되어) 압박하다, 괴롭히다		lead to 초래하다(= result in)

17.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s more and more leaders work remotely or with teams scattered around the nation or the globe, as well as with consultants and freelancers, you’ll have to give them more _____. The more trust you bestow, the more others trust you. I am convinced that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ow empowered people are to fully execute their job without someone shadowing them every step of the way. Giving away responsibility to those you trust can not only make your organization run more smoothly but also free up more of your time so you can focus on larger issue.

- ① work
- ② rewards
- ③ restrictions
- ④ autonomy

[정답] ④

[해설]

주어진 지문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자율성’이다.

[해석]

점점 더 많은 리더들이 멀리 떨어져 일하거나, 또는 컨설턴트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전국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과 함께 일하면서,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은 신뢰를 주면 줄수록,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된다. 나는 직업 만족도와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없이 자신들의 일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얼마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조직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 더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어휘]

remotely 멀리 떨어져, 원격으로	scatter 흩뿌리다, 흩어지게 하다	globe 세계
bestow 수여하다, 부여하다	trust 신뢰하다	convince 확신시키다
direct 직접적인	correlation 상호관계	empower 권한(자격)을 주다
fully 완전하게, 완벽하게	execute 실행하다, 실천하다	shadow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 미행하다
responsibility 책임	organization 조직	smoothly 원활하게, 매끄럽게
free up ~을 만들어내다, ~을 마련하다	reward 보상	restriction 제한
autonomy 자율성, 자주성, 자치권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노량진 실강+지정숙소(1인1실)+빍센 관리

7월반 모집중! 상담 후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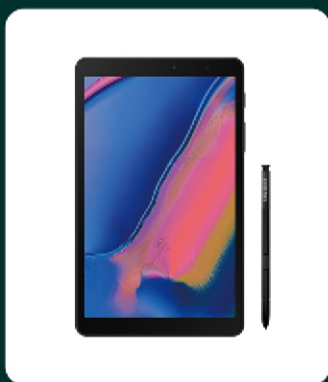
합격이 있는 차원이 다른 관리반!

2020년 9급 6개월만에
2관왕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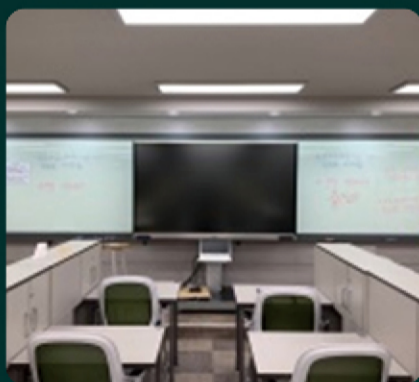


- 김○수 / 2관왕 2020 강원도 일행직 최종합격 / 2020 국가직 교정직
- 김○희 / 2관왕 2020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 2020 지방직 교육행정직
- 최○진 / 2관왕 2020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 2020 지방직 일반행정직
- 이○진 / 2관왕 2020 국가직 교정직 / 2020 지방직 일반행정직

**외
최종합격
다수 배출!**



갤럭시탭 **전원제공**



전용 자습실



1인 1실



지정식당

TALK 카카오톡 에서 **박문각 스파르타** 채널을 검색해보세요!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A형) 기출문제 및 해설(1)

| 노범석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2021. 06. 05. 시행 지방직 9급 공무원 문항 분석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1			
고대	2, 6, 12			7
중세	3, 4, 9, 10			11
근세	5			
근대동기	13			8
근대개항기	14, 16, 18			
일제강점기	15, 17			
현대	19, 20			

〈 총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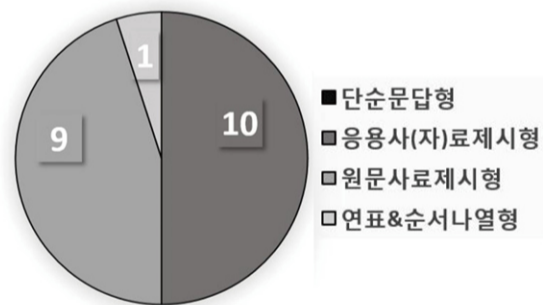
2021년 지방직 9급 한국사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으로는 **자료제시형이 19문제** (원문사료 9문제, 응용자료제시 10문제) 출제되었다. 이외에 **순서나열형은 1문제** 출제되었으며, **단순문답형문제는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가 1문제, 고대사가 4문제, 중세사에서 5문제, 근세사에서 1문제, 근대동기에서 2문제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3문제, 일제 2문제, 현대 2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대와 중세사의 비중이 꽤 많은 편이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7문제, 문화사가 3문제 출제되었다. 작년 지방직 9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제사와 사회사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는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 정책을 제시한 6번 문제 등이 있었다. 또한,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는 작년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단답형의 선지들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다.

〈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번호	출제 단원	출제 주제	난이도
1	선사	부여	중하
2	고대 정치	금관가야	중하
3	중세 정치	식목도감	하
4	중세 정치	고려의 대외관계(거란)	중하
5	근세 정치	사헌부	중하
6	고대 정치	연개소문	중상
7	고대 문화	원광	중
8	근대기 문화	박제가·한치윤	중
9	중세 정치	무신정권기 정치 상황	중
10	중세 정치	지역사(서경)	중
11	중세 문화	삼국사기	중
12	고대 정치	신문왕	중
13	근대기 정치	정조	중하
14	근대 정치	흥선대원군	중하
15	일제 정치	임시정부	중하
16	근대 정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하
17	일제 정치	신간회	중하
18	근대 정치	을사조약	중
19	현대 정치	미·소 공동 위원회	중
20	현대 정치	1960~70년대의 정치	중

〈 변별력 있는 문항 분석 〉

문항번호	출제 주제	특징
6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보장왕에게 도교 장려를 건의한 비교적 낯선 사료를 제시하여 변별력을 높인 문제이다. 해당 사료를 통해 인물을 특정해야 답을 고를 수 있었다.

〈 기출문제 및 해설 〉

01.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나라에서 여는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수놓은 옷·모직옷을 즐겨입는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하였다.
- ②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린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 ③ 가족 이름을 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 ④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1. 부여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부여의 제천행사·의복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부여에서는 왕 아래에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했는데 전해지는 것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오답분석 : ① 옥저의 장례 풍습에 대한 설명이다. ② 옥저·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 (중략) ... 구간(九干)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알 여섯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 (중략) ...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首露)가 왕위에 올라 (가)를 세웠다.
 - 『삼국유사』 -

- ① 해상 교역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 ②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 ③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 ④ 정사암 회의를 통해 재상을 선발하였다.

2. 금관가야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금관가야의 건국 설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①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해상 무역에 유리하였다. 또한 질 좋은 철을 많이 생산해서 이를 교역 활동에 이용하였다.
오답분석 : ②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초기 신라는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③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 기관이다. ④ 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03.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고려 시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도병마사와 (가)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다.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가)에서는 제도와 격식을 만들었다.

- ① 삼사 ② 상서성
- ③ 어사대 ④ 식목도감

3. 식목도감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에 들어갈 정치기구인 식목도감이다. 고려 시대에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소속된 고관이 함께 모여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는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 ④ 식목도감은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 등 대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오답분석 : ①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② 상서성은 정무 집행 기관으로, 6부를 하위 기관으로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③ 어사대는 감찰이 주 업무이며,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2022

노범석 해법국사

합격,
박문각
공무원



노범석 편저
47,000원(1·2권 포함)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교재

단원 공략 게시판과
연표, 해법 요약

해법 기출 진맥과
모방 불가능한 기출 분석

서술식 개념 구성과
최다 학습 콘텐츠

단계별 문제풀이로
개념 확인과 기출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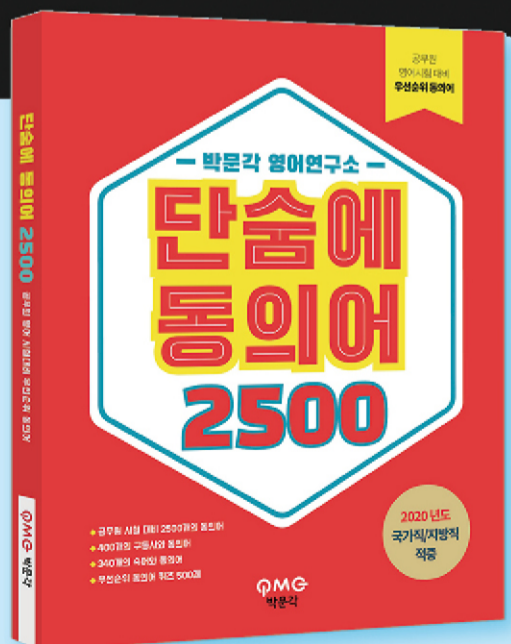
차곡차곡 정리하는 「한자성어」

한자성어		뜻
간두지세 竿頭之勢	뉘싯대 간/머리 두 갈지/형세 세	어려움이 극도에 달하여 꺾잡 못 하게 되었음을 비유한 말. '간두(竿頭)'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준말이다.
간목수생 剛木水生	굳센 강/나무 목 물수/날생	마른 나무에서 물을 내게 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라고 억지를 부리며 강요함을 비유.
감구지회 感舊之懷	느낄 감/예 구 갈지/품을 회	지난 일을 더듬으며 느끼는 회포.
감불생심 敢不生心	감히 감/아닐 불 날생/마음 심	힘이 부치어 감히 마음먹지 못함.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감언이설 甘言利說	달 감/말씀 언 이로올 이(리)/말씀 설	남의 비위에 맞게 꾸미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비위에 맞는 말.
감탄고토 甘呑苦吐	달 감/삼킬 탄 쓸고/토할 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함.
갑남을녀 甲男乙女	갑옷 갑/사내 남 새 을/여자녀(여)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갑론을박 甲論乙駁	갑옷 갑/논할 론(논) 새 을/논박할 박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강구연월 康衢煙月	편안 강/네거리 구 연기 연/달 월	태평한 시대의 변화한 거리, 즉 평화로운 풍경.
강호연파 江湖煙波	강 강/호수 호 연기 연/물결 파	대자연의 풍경.
개과천선 改過遷善	고칠 개/지날 과 옮길 천/착할 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됨. 옳게 과자신(改過自新).
거두절미 去頭截尾	갈 거/머리 두 끊을 절/꼬리 미	① 머리와 꼬리를 잘라 버림. ② 어떤 사실의 앞뒤의 잔사설은 빼놓고 요점을 말함.
거안제미 舉案齊眉	들 거/책상 안 가지런할 제/눈썹 미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히 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공경하며 받들어 올림을 일컫는 말.

‘SPEED’ 영단어 암기(107)

- 662. prior**
 : 사전의, 이전의(=former, previous, foregoing)
 ▷ This system will be more efficient than the **prior** one.
 (이 시스템이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다.)
- 663. reserved**
 : 지정된, 예약의(=booked)
 ▷ This seat is **reserved** for seniors.
 (이 자리는 노약자를 위해 지정된 자리다.)
- 664. validate**
 : ~을 증명하다, 입증하다(=confirm, prove, certify)
 ▷ His claim was recently **validated** by many evidences.
 (그의 주장은 최근에 많은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 665. abhor**
 : (특히 도덕적인 이유로) 혐오하다(=detest, loathe, despise)
 ▷ Most people **abhor**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characteristics such as race and sex.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종과 성과 같은 특징에 기반한 차별을 혐오한다.)
- 666. capsize**
 : 뒤집어엎다, (배가)전복되다(=overtum)
 ▷ They were afraid they were going to **capsize** the boat.
 (그들은 보트가 뒤집히게 될까 봐 불안했다.)
- 667. bargain**
 : 매매계약, 협상하다, 흥정하다(=negotiate)
 ▷ Discounts, sales and other **bargains** can be instantly relayed to consumers in the form of reports.
 (할인, 판매, 그 외의 매매계약이 보고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다.)
 ▷ You can't **bargain** at a department store. They sell at a fixed price.
 (백화점에서는 값을 흥정할 수 없어요. 정찰제로 판매하거든요.)
- 668. surpass**
 : ~을 능가하다, ~보다 뛰어나다(=excel, exceed, outdo, go beyond)
 ▷ She has **surpassed** me in science.
 (그녀는 과학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나다.)

박문각 공무원



단숨에 동의어 2500



30일 공무원 영어 어휘 마스터!

지금 박문각 북스파(www.bookspa.co.kr)에서 단숨에 동의어 2500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문각 노무사

2022년 노무사 시험대비

노무사 올패스 OPEN

2022년 노무사 시험 합격은 박문각이 정답인 이유!

올패스만의 파격적인 수강 혜택!



2022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2차 모의고사 강의
온라인 첨삭



2022 대비 강의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선행학습을 위한
2021 강의 제공



교재 구매 지원
최대 20만원

최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차 과정	기본이론(선행)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 고사		
2차 과정			GS 0기				GS 1기		GS 2기			GS 3기	

검증된 노무사 전문 강사진!



종로학원 02)734-8082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합격보장 현장패스!

9급 종합반 대개강!

개강일 7월 5일 월 ~ 7월 12일 월 *순차개강

업계최초! 직렬 교수팀 개강!

전담팀 교수님들이 합격까지 책임집니다

합격할 때까지 현장강의와 올패스를 무제한 수강
말로만 합격 보장이 아닌, "진짜 합격"

일반행정직 4개의 전담팀

직렬별 전문 전담팀



입학상담 |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1층

N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최신교재와
다양한 혜택!

박문각 북스파

박문각 북스파 추가 사은품 지급 이벤트

무더운 여름엔 COOL하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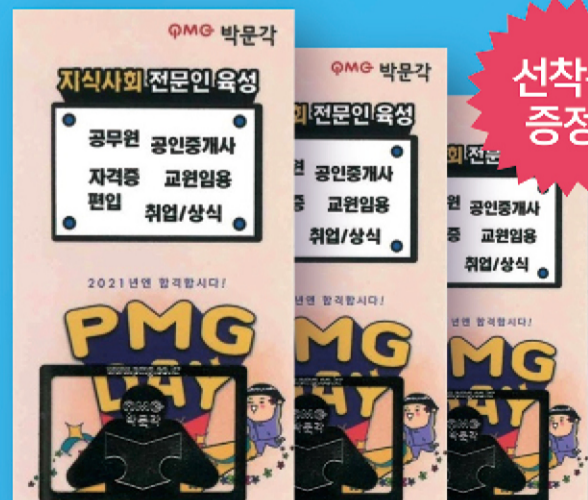
수험서 전문 쇼핑몰 박문각 북스파에서
도서를 1권이라도 구매 시

100% 모~든 분들께 박문각 책갈피를 함께 드립니다.

책에 끼워 자신이 읽었던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박문각 책갈피 100% 지급

사은품은 도서와
함께 발송됩니다~!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5)

| 이명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6.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 ②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1/100 이내로 계상해야 하고(의무), 그 밖의 특별회계는 1/100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재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하이패스 행정학 p741

[핵심체크] 관련법률 - 「지방재정법」 제43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
- ② 쓰레기통 모형
- ③ 조직과정 모형
- ④ 관료정치 모형

[정답] ④

[해설]

앨리슨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구성원들의 응집성을 기준으로 성질별로 분류하여 세 가지 상호배타적인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실문은 이 중 앨리슨모형Ⅲ인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것이다. 관료정치모형은 개인차원의 점증모형을 정부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유추·적용한 모형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에 합의된 정책결정을 위해 갈등·타협·홍정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용어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313

[핵심체크] 앨리슨(Allison)모형

구분	합리자모형(I)	조직과정모형(II)	(관료)정치모형(III)
의의	개인차원의 합리모형을 집단차원에 적용	회사모형의 논리개념을 이용하여 구성된 모형	개인차원의 점증모형을 집단차원에 적용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인 최고지도자가 보유	반독립적인 하위부서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부서들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부서들의 목표 + 개별 행위자들의 목표
응집성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정책결정의 양태	합리적 정책결정	SOP에 의한 의사결정, 갈등의 준해결	정치적 표결이 아닌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른 타협, 갈등, 홍정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함 (항상 일관성 유지)	약함 (자주 바뀜)	매우 약함 (거의 일치하지 않음)
적용계층	모든 계층에서 나타남	주로 하위계층에 나타남	주로 상위계층에 나타남

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특정 제도의 도입과 지속성은 업무수행에 효율적(결과성의 논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현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가장 적절(적절성의 논리)하여 조직의 외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이패스 행정학 p122

[핵심체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의의	사회문화적 환경(문화, 관습 등)과 조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조직이론을 토대로 인지된 문화적 관행으로서의 제도를 중시하는 접근방법
제도의 개념	• 전통·관습·문화·유행·상징체계 등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을 낳는 모든 것 • 신제도주의적 접근 중 제도를 가장 넓게 인식
제도의 형성	• 동형화 현상: 문화적 관행을 전파시키는 동형화 현상으로 제도 형성 • 정당성의 논리 및 비합리적 제도 형성: 도구성(합리성, 효율성)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정당성의 논리로 제도가 형성되므로 비합리적 제도가 형성됨 • 인지에 의한 제도 채택: 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것'으로 개인이 인지한 제도 채택
제도의 변화	기존 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할 때 제도는 변화(제도의 환경의존성 강조)
주요내용	• 제도: 비공식적 제도 중시 - 전통·관습·문화·유행·상징체계·인지구조 등 • 인간: 내생적 선호 - 개인의 선호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내생적으로 형성 • 강조점: 제도적 환경(사회문화적 환경)과 배태성 중시, 결과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 강조
유용성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 및 제도의 형성·확산·재생산 설명
한계	• 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 미흡 •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고려가 없어 미시적 기초 결여 • 조직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 및 제도화의 이유로서 기술적 능률성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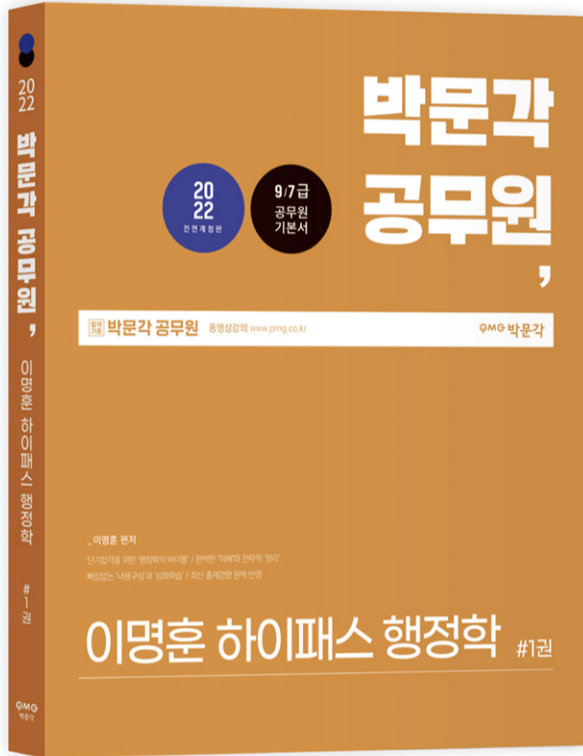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박문각

BOOKs 

합격의 책

HOT



2022 전면개정판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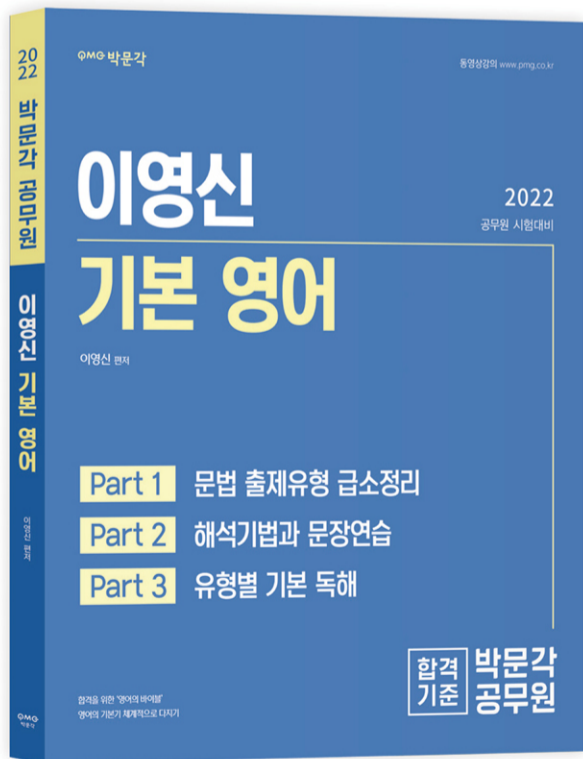
합격,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단기합격을 위한 '행정학의 바이블'

- 완벽한 '이해'와 전략적 '정리'
- 빠짐없는 내용 구성과 심화학습
- 최신 출제경향 완벽 반영

이명훈 편저 / 42,000원(1·2권 포함)

HOT



2022 이영신 기본 영어

합격, 박문각 공무원

영어의 기본기 체계적으로 다지기

- Part 1 문법 출제유형 급소정리
- Part 2 해석기법과 문장연습
- Part 3 유형별 기본 독해

이영신 편저 / 15,000원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합격 선배들이 검증한 검찰 합격 루트!

검찰직 전담팀



국어 천지현

영어 이영신

한국사 남택범

형법, 형사소송법 김상천

검찰직 종합반 시간표

	일	화	수	목	금	토
오전 (10:00~13:00)	국어(천지현)	국어(천지현)		한국사(남택범)	영어(이영신)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정+검찰) (09:00~12:50)
오후 (14:00~17:00)	한국사(남택범)	영어(이영신)	형법(김상천) (14:00~17:50)	형법(김상천) (14:00~17:50)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정+검찰) (14:00~17:50)	

*국영한 : 일행 극강의 외인구단 팀과 공통

2022년 제 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대비

Human 사회복지학강의 일정 및 이벤트안내



사회복지사 1급 다빈출코드 (4주)
21년 7월 10일(토) ~ 7월 31일(토)
매주 토 14: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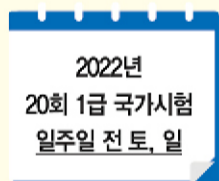
사회복지사 1급 이론강의 (9주)
21년 8월 7일(토) ~ 10월 3일(일)
매주 토/일 14:00~19:00



사회복지사 1급 핵심이론정리 (4주)
21년 10월 16일(토) ~ 11월 7일(일)
매주 토/일 14:00~19:00



사회복지사 1급 핵심기출문제 (600제) & 실전모의고사(400제) (5주)
21년 11월 27일(토) ~ 12월 26일(일)
매주 토/일 14:00~19:00



사회복지사 1급 실전대비 최종 모의고사
토, 09:30~14:15 (실제 시험시간과 같이 모의고사 진행)
일, 14:00~21:50 (해설강의)

※ 패키지 할인 안내

- 1) 사회복지사 1급 패키지 I [다빈출+이론+핵심+문풀+최종]
70,000원 + 300,000원 + 150,000원 + 180,000원 + 70,000원
(18만원 할인) -770,000원 → 590,000원
- 2) 사회복지사 1급 패키지 II [다빈출 + 이론 + 문풀 + 최종]
70,000원 + 300,000원 + 180,000원 + 70,000원
(13만원 할인) -620,000원 → 490,000원
- 3) 사회복지사 1급 패키지 III [다빈출 + 이론 + 핵심 + 최종]
70,000원 + 300,000원 + 150,000원 + 70,000원
(12만원 할인) -590,000원 → 470,000원

HUMAN강의 20년 기념 BIG이벤트



수강생 분들께 드리는 어 쌤의 Special 선물~!!



사회복지사 1급 실강패키지 I, II, III 신청자 중 선착순 지급!!
(선착순 진행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 휴먼장학금 지속적 지급

모의고사 평균 점수	공통 선물
80.0~84.9	30,000원
85.0~89.9	50,000원
90.0~94.9	70,000원
95.0 이상	100,000원

공통 선물: 휴먼상장 수여, 샌드 저녁식사

※ 이론강의 기준

전공실력 UP! 성적 UP! 장학금 혜택!
예쁜 상장과 함께 선생님과의 즐거운 저녁식사까지!!
1석 5조 그 이상의 만족을 경험하세요!!

Human 선생님의 깨알 선물

(실강은 매 강좌마다 지급)

- 1) 휴먼 동기부여노트 2) 휴먼 L홀더 2개 3) 휴먼 포스트잇 세트
- 4) 휴먼 3색 볼펜 5) 휴먼 컴퓨터용 사인펜

수시 이벤트(실강)

- 1) 미래가치 출판사의 응원 선물 - 형광펜
- 2) Human 현직(합격) 제자님들의 응원 방문과 선물
- 3) Human 선생님이 수시로 주시는 선물





「2021년 지방직 9급」 회계학(A형) 기출문제 해설(1)

| 신은미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0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을 보강시키는 특성으로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 있다.
- ③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은 증가한다.
- ④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은 감소한다.

0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
- ②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며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한다.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되어야 하며, 추정은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03. (주)한국의 다음 재무자료를 이용한 기타포괄이익은?

○ 기초자산 ₩15,000	○ 기초부채 ₩ 8,000
○ 기말자산 ₩ 18,000	○ 기말부채 ₩ 5,000
○ 유상증자 ₩ 2,000	○ 당기순이익 ₩ 3,000
○ 현금배당 ₩ 1,000	○ 기타포괄이익 ?

- ① ₩ 0
- ② ₩ 1,000
- ③ ₩ 2,000
- ④ ₩ 3,000

[정답] ③

[해설]
1) 기초자본 = ₩15,000(기초자산) - ₩8,000(기초부채) = ₩7,000
2) 기말자본 = ₩18,000(기말자산) - ₩5,000(기말부채) = ₩13,000

3) 기말자본(₩13,000) = ₩7,000(기초자본) + ₩3,000(당기순이익) + ₩2,000(유상증자) - ₩1,000(현금배당) + 기타포괄이익
→ 기타포괄이익 = ₩2,000

04. (주)한국은 20×1년 직원들에게 ₩1,000의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다. 20×1년 초 미지급급여가 ₩200, 20×1년 말 미지급급여가 ₩700이면 당기에 발생한 급여는?

- ① ₩ 1,000
- ② ₩ 1,200
- ③ ₩ 1,500
- ④ ₩ 1,700

[정답] ③

[해설]
발생주의 급여 (?)
+ 미지급급여 증가 ₩500
= 현금지급 급여 (₩1,000)
→ 발생주의 급여 = (₩1,500)

0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 ②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 ③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④ 총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06. 다음의 20×1년 재무정보를 이용한 매출총이익은? (단, 회전을 계산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매출채권회전율	10회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 기준)	6회
기초매출채권	₩ 600	기초재고자산	₩ 500
기말매출채권	₩ 400	기말재고자산	₩ 700

- ① ₩ 1,000
- ② ₩ 1,400
- ③ ₩ 1,900
- ④ ₩ 2,200

[정답] ②

[해설]
1) 매출액 = ₩500(평균매출채권) x 10회(매출채권회전율) = ₩5,000
2) 매출원가 = ₩600(평균재고자산) x 6회(재고자산회전율) = ₩3,600
3) 매출총이익 = ₩5,000 - ₩3,600 = ₩1,400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바른 시작이 곧 합격이다!

7급 종합반 **대개강!**

개강일 7월 12일 **월**

더 강화된 강사진으로 합격의 확신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직렬에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학습 Care부터 생활 Care까지, "진짜관리"

노량진 박문각 최고의 7급 강사진 구성

신림동 5급 공채 1타 교수 신규 입성!



입학상담 |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1층

N | 박문각 공무원

바로 듣고, 풀고, 질문

박문각 ▶



▶ (10) 00:00 2022 공무원 합격, 박문각

박문각 넷클래스




www.pmg.co.kr

하는 라이브 실전 특강

NET class



NET 클래스로 완성됩니다!

1:00:00  

문의 02-6466-7366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 행정법(A형) 기출문제 및 해설(3)

| 김태성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④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③ (O)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 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④ (X)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판 2014.12.24. 2014두9349).

11.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 ②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지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O)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② (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대결 2006.12.08. 2006마470).

③ (X)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④ (O)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0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2.26. 2002헌바26).

12.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

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 ②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 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③ (O) ④ (O)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X)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며,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3.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O)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20. 4. 29. 2017도13409).

③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임용고시 1타의 명성 그대로!

다이아몬드팀

교육행정직 전담



국어 전선혜

영어 유희태팀

교육학 오현준

한국사 선우빈

행정법 김태성

교육행정직 다이아몬드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2:50)	영어(유희태)	영어(유희태)(2) /국어(전선혜)(2)	국어(전선혜)	한국사(선우빈)	한국사(선우빈) (2)	행정법(김태성) 격주
오후 (14:00~17:50)		행정법(김태성)	교육학(오현준)			

*국한 : 일행 다이아몬드 팀과 공통 *교육학, 영어 : 교행직 공통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교육학개론(A형) 기출문제 해설(2)

| 오현준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05. 교사의 동기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목표설정 이론은 직무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독립된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
- ②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양뿐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③ 기대 이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본다.
- ④ 성과-만족 이론은 자신이 투자한 투입 대 결과의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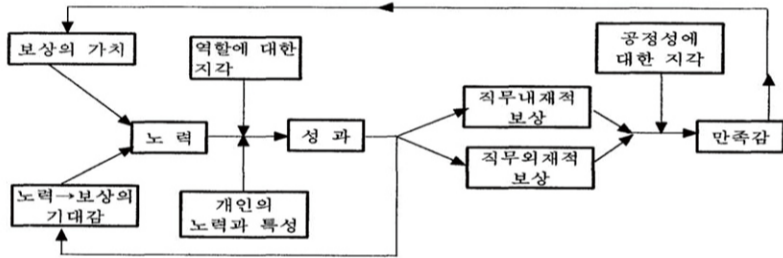
[정답] ③

[해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인간은 사고와 이성을 지닌 존재로,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동기화 과정에서 개인의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인간의 동기는 특정행위에 특정결과가 나오리라는 성과기대와 그 성과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보상기대, 보상에 대한 유의성(매력성)의 곱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본다.

- ①은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 ②는 포터와 로울러(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성과-만족이론),
- ④는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해당한다.

[Tip] 포터와 로울러(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성과-만족이론)의 모형도



06. 문화실조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의 학습실패 중요 요인으로 학생의 문화적 경험 부족을 지목한다.
- ②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며, 학생 간의 교육격차가 문화적 결핍보다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 ③ 빈곤가정의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다.
- ④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답] ②

[해설]

문화실조론(cultural deprivation theory)은 유전적 요소(☹ 지능)가 아닌 후천적 요소(생후 경험)와 가정의 문화적 환경 차이, 즉 학생의 문화적 경험 부족이 학습 실패의 중요 원인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기능이론적 접근으로 콜먼(Coleman)의 주장이 해당한다. 문화의 우열이 있으며, 가장 우수한 서구 산업사회의 백인 중산층 문화가 결핍된 집단의 아동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격차를 해결방안으로 문화실조를 경험한 계층의 자녀들의 문화실조를 보상하는 보상적 평등정책(☹ Head Start Project)의 구현을 주장한다.

②는 문화다원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문화다원론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번스타인(Bernstein), 부르디외(P. Bourdieu) 등 갈등이론적 접근이 해당한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계급의 문화만을 학교에서 가르침으로써 그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와 그 문화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기에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은 특정 계급의 자녀들이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ip] 교육격차 발생이론 - 문화실조론과 문화다원론

	문화실조론	문화다원론
기본 전제	문화에는 우열이 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다만 다를 뿐이다.
학교 교육과정	우수한 문화, 즉 주류문화(서구 사회 백인 중산층 문화)로 구성	특정 계층(지배계층)의 문화만으로 구성 → 계층편향적인 문화로 구성

교육격차 발생원인	농촌, 하류층, 흑인 집단의 학생들의 후천적 문화적 경험 부족, 주류문화의 결핍 때문	특정 계층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불이익 →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
교육격차 극복방안	불우계층의 저학력 아동들에 대한 보상적 평등 프로그램을 확대 ☹- Head Start Project	교육과정 재구성 → 모든 계층의 문화를 균형 있게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

07.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③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평생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는 1968년 허친스(Hutchins)가 학습사회론을 제창한 후 평생학습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제15조)에 따르면 ②는 대통령령(「평생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①은 제4항, ③은 제2항, ④는 제1항에 해당한다.

[Tip] 평생학습도시의 유형 및 관련 규정

1. 평생학습도시 유형

경제발전 중심	산업혁신형	기업체가 주도, 산업복합단지의 혁신 목적
	학습 파트너형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시민사회 중심	지역사회 재생형	변화에 알맞은 지역사회의 재생 및 혁신전략 구현
	이웃 공동체 건설형	이웃을 위한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정신 고양

2. 「평생교육법」관련 규정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08.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2기에 걸쳐 재임할 수 있다.
- ③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단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한다.
- ④ 시·도 교육청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한다.

[정답] ①

[해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0조 제2항).

②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제21조).

③은 실시 단위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한다(제2조).

④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교육위원은 시·도의회 의원 중에 배정한다.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 공무원 9급

임용고시 1타의 명성 그대로!

TOP STAR팀

교육행정직 전담



국어 박혜선

영어 유희태팀

교육학 오현준

한국사 선우빈

행정법 김태성

교육행정직 탑스타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2:50)	영어(유희태팀)	영어(유희태)(2) /국어(박혜선)(2)	국어(박혜선)	한국사(노범석)	한국사(노범석) (2)	
오후 (14:00~17:50)	행정법(유대웅)	행정법(유대웅)	교육학(오현준)			

*국한 : 일행 탑스타팀과 공통 *교육학, 영어 : 교행직 공통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영어 모의고사 및 해설(2)

| 정일현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정일현 영어

- ▶ 21년 2차 대비 정일현 영어 문제풀이 패키지 전범위 모의고사(4주) + 마무리 특강(2주)
 - 개강 : 2021/07/09
 - 시간 : [금] 09:00~13:00
- ▶ 21년 2차 대비 정일현 영어 동형모의고사
 - 개강 : 2021/07/09
 - 시간 : [금] 09:00~13:00

08.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정당은 그 법안에 대한 변경된 계획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 The party strongly objected the revised plan for the bill.
- ② 당신은 수술 후 며칠간 팔을 움직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 You might find uncomfortable to move your arm for a few days after the surgery.
- ③ 청문회에 참석한 모두가 그녀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 Everyone present at the hearing didn't oppose to her being punished.
- ④ 당신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없다.
→ Nothing shapes your life more than the moments you choose to make.

08. [정답] ④ ♣ 난이도 중

【해설】영작

- ① 동사 object는 전치사(to) 없이 목적어(the revised plan)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이므로 objected를 objected to로 고쳐야 한다.
- ② 목적격 보어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덩어리 동사의 쓰임이다.
[make, find, think, believe, keep, leave]등의 동사 + 목적어 + 형용사의 구조
to 부정사구 목적어(to move your arm)가 목적격 보어(uncomfortable)와 함께 오면, 전목적어인 to 부정사구를 목적격 보어 뒤로 보내고 목적어가 있던 자리에 가목적어 it 을 써서 '가목적어 it + 목적격 보어(uncomfortable) + 진짜 목적어(to 부정사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find uncomfortable to move를 find it uncomfortable to move로 고쳐야 한다.
- ③ oppose to → oppose
oppose는 능동의 형태에서는 전치사 없이 쓰인다.
cf) oppose = be opposed to ~ing = object to ~ing ' ~에 반대하다'
- ④ 부정어 ~ 비교급 than의 형태로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 형태로 맞는 표현이다.

09.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의는 연기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
→ The meeting was put off, which was what we didn't want.
- ② 그들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 No sooner had they started the work before the trouble occurred.
- ③ 그는 그녀를 곧 서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 It won't be long before he will meet the lady in Seoul.
- ④ 그 이론이 옳고 그른지는 두고볼 일이다.
→ Whether the theory proves correctly or not remains to be seen.

09. [정답] ① ♣ 난이도 중

【해설】영작

- ① which의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이며, we wanted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므로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before → than
[No sooner - than ~ = hardly had 주어 p.p. before 주어 + 과거] (-하자마자 ~하다) 구문이다.
- ③ before he will meet the lady → before he meets the lady
it won't be long before은 '곧 ~할 것이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before 뒤에 오는 동사는 시간의 부사절이므로 미래를 쓸 수 없다.
- ④ correctly → correct
whether ~ not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단수 취급한다.
prove는 2형식 동사로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한다.
remain to be seen은 '두고볼 일이다'로 해석하는 관용구이다.

10.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I can intuitively sense something strange about the atmospher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have leaked again.
B : Who do you think tell the boss on it?
A : John must be a spy. We have to watch out.
I think _____.
B :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him?
A : I've heard that he is a nephew of our boss.

- ① he nails his colors to the mast
- ② he sails under false colors
- ③ he is such a neat freak
- ④ he wouldn't harm a fly as far as I know

10. [정답] ③ ♣ 난이도 중

【해설】생활영어

- ② sail under false colors(신분을 위장하다.)
color에는 깃발의 뜻을 가지고 있음으로 '가짜 깃발을 달고 항해하다' 즉 신분을 속이고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① nail one's colors to the mast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③ neat freak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
④ wouldn't harm a fly 마음이 여리다
- 【해석】
A : 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 비밀정보가 또 새나간 것 같아.
B : 누가 사장에게 그것을 사장에게 고지했을까?
A : 존은 스파이가 분명해. 우리가 조심해야겠어. 그가 신분을 위장한 것 같아.
B : 그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
A : 그가 우리사장의 조카라고 들었어.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cient people knew that certain foods were good for health. However, they didn't know why they were good. Modern researchers are studying many of these foods and finding them high in healthy compounds. Some of these compounds are called antioxidants, which keep cells healthy. For example,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is studying garlic. The antioxidants in garlic help to protect cells, so researchers think that eating garlic might prevent cancer. Researchers in China are also studying garlic. They found a similar result; people who ate garlic were 60 percent less likely to get stomach cancer. On the other hand, scientists at Tufts University are studying the antioxidants in raisins. They found that these compounds can prevent cell damage. So eating grapes and raisins might also keep you healthy.

- ① the benefits of eating vegetables
- ② ways to treat diseases with garlic
- ③ the healthful effects of antioxidants
- ④ how to extract antioxidants in food

11. [정답] ③ ♣ 난이도 중

【해설】독해-주제

본문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들어 있는 합성물의 하나인 노화 방지제가 건강상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① 채소 섭취의 이점
- ② 마늘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③ 노화 방지제의 유익한 효과
- ④ 음식에서 노화 방지제를 추출하는 방법

【해석】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음식들이 왜 좋은지는 알지 못했다. 현대 연구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연구하여, 그 음식들에는 건강에 좋은 합성물이 많이 있음을 알아내고 있다. 이러한 합성물 중 일부를 노화 방지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 예를 들어, National Cancer Institute는 마늘을 연구하고 있다. 마늘에 있는 노화 방지제는 세포 보호를 도와주므로, 마늘 섭취가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연구원들은 생각한다. 중국의 연구원들 역시 마늘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유사한 결과, 즉 마늘을 먹는 사람들은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60퍼센트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편, Tufts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건포도에 있는 노화 방지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 합성물이 세포 손상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포도와 건포도를 먹는 것 역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 줄 것이다.

【어휘】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compound 합성물, 화합물
garlic 마늘
raisin 건포도
antioxidant 노화[산화]방지제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경찰

2021 상반기 **최종 합격률 87.9%**

2021년 상반기 경찰시험남학생 33명 **100% 전원합격**, 여학생 25명 중 18명 합격!

2022년 대비

경찰

올패스

All Pass



경찰 올패스 보기



교재 구매까지 완벽 지원
최대 15만원 적립금 제공!

* 경찰 올패스 구매 시 해당



수강기간 동안 최종합격 시
수강료 환급!

* 경찰 올패스 구매 시 해당



2022년 개편과목 &
한능검·G-TELP 포함
전 강좌 무한수강



매일·매주·매월
**성적관리
모의고사**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형법 모의고사 및 해설(1)

| 오상훈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오상훈 경찰 형법

- ▶ 1년 2차 대비 오상훈 형법 동형모의고사
 - 개강 : 2021/07/06
 - 시간 : [화] 09:00~13:00
- ▶ 22년 1차 대비 오상훈 형사법
 - 개강 : 2021/07/08
 - 시간 : [목] 09:00~13:00

0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므로 노역장유치는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01. [정답] ④ [해설] 형법의 기초이론 ♣ 난이도 중

- ① X: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17, 97도3349).
- ②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대결 2008.7.24, 2008어4).
[사실관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기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③ X: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질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결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 ④ O: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재결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0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02. [정답] ③ [해설] 형법의 기초이론 ♣ 난이도 중

- ① O: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8.8.1, 2015도10388). ∴ 과실책임설
- ② O: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상가이중분양사건]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
- ③ X: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대판 1995.7.28, 94도3325).
- ④ O: 대판 1995.7.25, 95도391

03.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 ㉣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 ① ㉠㉡ ② ㉢㉣
- ③ ㉠㉡㉣ ④ ㉢㉣㉤

03. [정답] ①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상

- ㉠ O: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 ㉡ X: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 X: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해당한다.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과실)

- 만 있으면 족하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제15조 제2항).
- ㉣ O: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행위의 태양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X: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는 소추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0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 ㉡ 의사 甲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 A에게 수술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甲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설명의무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① ㉠㉡㉢ ② ㉠㉢
- ③ ㉠㉡ ④ ㉢㉣

04. [정답] ①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 ㉠ O: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5.11, 2018도2844). ∴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 O: 대판 2015.6.24, 2014도11315
- ㉢ O: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0.9.5, 2000도2671).
- ㉣ O: 대판 2001.12.11, 2001도5005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경찰

2022년 과목개편대비

전원합격 관리반



리뉴얼
EVENT!

박문각 경찰학원 방문 상담 후
20일 이내 등록 시 추가 10%할인 적용!!

7월 5일 (월) 개강

22년 1차 대비 연간회원반

전원합격관리반(2021년 7월~2022년 2월)

~~2,820,000~~ 원 **30% 할인** 1,974,000 원

22년 1차 대비 기본이론종합반

전원합격관리반(2021년 7월~2021년 9월)

~~1,260,000~~ 원 **40% 할인** 756,000 원

박문각 감정평가사

박문각 감정평가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년 연속
전체·실무 수석
합격자 배출

2017 ~ 2020 서울법학원
온·오프 수강생 기준

최종합격 시기
총 167건
업계최다

~ 2020.1.10
20줄 이상 합격시기 등록수 기준

감정평가사
브랜드 검색 수
1위

2019.1 ~ 2019.12
네이버 DataLab 브랜드 검색 기준

온·오프
수강생 수
1위

감정평가사 2차 단과·GS스터디
온·오프 수강생 기준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올패스

1차 올패스 | 2차 올패스 | 동차 올패스



2022년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재 구매 시 최대
20만 포인트 지급



업계 유일
온라인 청약 서비스



다양한 올패스
혜택사항 제공



서울법학원 02)887-9161~3 | 온라인 02)3489-9500

목표가 합격이라면, 선택은 **박문각임용** 이다

박문각 **함께** 임용과 **함께** **해볼** **텐가**

7~8월 문제풀이반 대개강



#교육학 #유아 #초등 #특수 #국어 #영어 #수학 #일본사회 #역사 #지리 #과교론 #물리 #화학 #생물 #체육 #미술 #음악 #가정 #기술 #한문 #중국어 #일본어 #기계 #금속 #상업 #정보컴퓨터 #보건 #영양 #전문상담

박문각임용학원



철저한 방역
안전한 학원

* 강의에 따라 LIVE 강의 제공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현장감
LIVE 강의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학습
인터넷 강의



접수 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www.pmg.co.kr) 참조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이선화 교육학 공개 모의고사(1)

| 이선화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선화 교육학 공개모의고사

제1차 시험	1교시	1문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최근 학생중심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음은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OO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한 사항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학생 이해, 교수방법,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십시오. [20점]

교사: 학교의 주인이 학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듣고 학교 교육에 반영한다면, 더욱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학교에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 A: 학교 교육과정이 나 자신과 관련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과를 통합한 수업에서도 한 주제를 여러 교과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통합보다는 학생들이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학생 B: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고민도 해 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뭘 해야 행복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기도는 선생님들이 이런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공부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학생 C: 수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고 다양한 수업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특히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에 따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그러한 자기주도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학생 D: 여러 학교 생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외부 체험활동을 나갈 때 좀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활동들이니 학생 의견에 따라 체험활동을 구성한다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생 A의 교과 통합 관련 의견을 드레이크(Drake)의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기존 통합 방식의 한계를 1가지 제시하고, 학생 A가 제안하는 통합방식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각각 설명 [3점]
- 학생 B의 정체감 상태를 마샤(Marcia)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 학생의 정체감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1가지 제시, 데시와 라이언(Deci & Ryan)의 이론을 활용하여 학생 B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제시 [4점]
- 학생 C의 의견을 읽고,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발하는 주제의 특징을 2가지 설명, 반두라(Bandura)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이 궁극해 하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구성요소를 2가지 제시 [4점]
- 학생 D의 의견을 참고하여 호이와 타터(Hoy & Tarter)의 의사결정참여모형에 근거했을 때, 수용영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체험활동 결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교사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 [4점]

*** 논술의 구성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모의고사의 목적

- 상반기 교육학 공부 사항 확인
- 전체적인 모의고사 답안 작성 연습
- 이론 활용형 논술 서술 연습

주요 영역 및 키워드

- **교육과정** - 드레이크의 교육과정 통합 방식 확인(이론 활용형)
- **교육심리** - 마샤의 정체감 이론 확인 및 방안(이론 활용형, 일부 오픈형)
 -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이론 활용형, 제시문 연계 주의)
- **교수이론 및 공학** - 구성주의 전반(이론 활용형)
 - 반두라 자기주도학습
- **교육행정** - 호이와 타터의 의사결정 참여모형 사례 확인(이론 활용형)

관련자료

[드레이크의 교육과정 통합]

다학문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교과의 개념이나 방법, 절차를 활용하여 몇 개의 학문이 동시에 주제를 다루어 나가는 접근 방식 • 교과의 구분과 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 되는 유형 	학생은 수여자·행위자 역할
간학문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같은 방식이나 수준에서 새롭고 의미있는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 방식 • 둘 이상의 학문분야의 구조적 혹은 탐구방법상의 관련성을 토대로 한 학문의 대상분야에 다른 학문분야의 탐구방법이나 접근모형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구조적으로 묶어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학생은 행위자 역할
탈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학문 영역으로부터 추출된 내용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주제영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 • 학습자의 능동적인 문제해결활동이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 	학생은 공동 계획자·탐구자 역할

[마샤의 정체감 발달이론]

(1) 정체성 형성의 구성요소

위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
수행(전념)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

(2) 정체성 유형

자아정체감 성취	위기○, 수행○.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
자아정체감 유예	위기○, 수행×. 현재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
자아정체감 유실 (조기완료/폐쇄)	위기×, 수행○. 자신의 신념, 직업선택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수많은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부모나 다른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사결정한 상태
자아정체감 혼미	위기×, 수행×. 자아에 대해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상태

박문각 임용

문제풀이력을 통한 완벽한 이론 이해와 서술대비까지

임정애 전공가정



[개강일] 직강 : 7월1일(목) 10시 / 인강 : 7월2일(금) 18시 이전

[7~9월] 적중예상 영역별 문제풀이반(8주)

강의 시간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목 10:00 ~ 17:00	8주	7/1(목) ~ 9/23(목)

※ 문풀, 모고 직강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

- 문제풀이를 통해서 각 영역을 복습하고 서술에 대비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합니다.
- 문제를 통해서 난이도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역별 문제를 풀면서 각 이론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론을 더욱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교재] 프린트

[강의 시간]

	과 목	시 간
레스트	1 교시 전공 A	10:00 ~ 11:30
	2 교시 전공 B	11:40~13:10
해 설 (수업 종료 시간은 약간씩 변동가능합니다)		14:00 ~ 17:00 ※ 수업 종료 후 순번에 따라 개별 답지 확인 시간과 및 질문 시간을 가집니다. 개인별로 총 8회 중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상업 실전모의고사 및 해설(5)**

| **전민식**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 조세의 분류

◆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는가에 따라 = 사용 목적의 지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ex.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 목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교육세처럼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ex. <국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 [2단계 내용 수정] ↳ <폐지> ↳ <명칭 변경>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 조세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ex.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음. → 납세 의무자 = 담세자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 간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 ex.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세 전가가 일어남. → 납세 의무자 ≠ 담세자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음.

◆ 부가 가치세란?

부가 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유통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	--

◆ 부가 가치세 주요 특징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일반세이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므로 소비세에 해당함.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는 구별됨.
간접세 ≠ 직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단계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게 되는 간접세에 해당함.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조세로서 주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부가 가치세는 실제로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나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 가치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산출(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함. <li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 - 매입세액(매입액 × 세율) 본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거래 징수' 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다.
다단계 거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사업자에게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한다.

소비자국 과세원칙 ≠ 생산자국 과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국 과세원칙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생산자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생산자국 과세원칙에서는 생산자국과 소비자국의 간접세율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간접세로 인해 국가간의 대외경쟁력의 왜곡이 초래된다. 소비자국 과세원칙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생산자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 제도 적용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 소비자국 과세원칙에서는 생산자국과 소비자국의 간접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외경쟁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	--

◆ 부가 가치세 회계처리 관련

■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관련 기출문제 <2006> 7번 중 발해

07.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1월 20일 : 대일상사는 업무용 트럭 10,000,000을 구입하고 취득세 200,000, 등록세 80,000, 부가가치세 1,000,000을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정답 및 해설)

11월20일	차량운반구 부가세대금	10,280,000 1,000,000	당좌예금	11,280,000
--------	----------------	-------------------------	------	------------

◆ 부가 가치세 회계처리

상품 매입 시 (매입세액)	매 입 부가가치세대금	100 10	현 금	110
상품 매출 시 (매출세액)	현 금	220	매 출 부가가치세예수금	200 20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예수금	20	부가가치세대금 현 금	10 10

◆ 부가 가치세 관련 예제, 2017.10.22. 하프모의고사 3회 3교시 전공B 11번

(『제2018-150호

11.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의거하여 수립된 (㉠) 과목의 내용 영역과 내용 영역 요소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과목명과 (㉡)에 들어갈 내용 영역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4점]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나. 영역별 성취기준
부가 가치세	• 부가 가치세의 개요	← '전 단계 세액 공제법'
	•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 사업장과 거래 장소	
	• 영세율 적용과 면세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와/과 세금계산서	
	• 납세 절차와 환급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답을 쓰시오.(단, ①~④번을 표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4점]

<조 건>			
① (㉠)에 들어갈 과목명을 쓸 것.	② (㉡)에 들어갈 용어를 쓸 것.		
③ (㉡)의 개념을 서술할 것.	④ ㉡와/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서술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 세무 일반 ② ㉡ 거래 징수

③ ㉡거래 징수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거래 징수라고 하며 이는 사업자(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④ 거래 징수하는 경우 사업자(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의 기능을 한다.

박문각 임용

누구보다 쉽게 생물을 정복!!

전공생물 신범식



[7~9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7~9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12주)

강의 시간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토 09:00 ~ 18:00	12주	7/3(토) ~ 9/18(토)

[강의 소개]

- ▶ 생물 교과내용학 전 범위에 걸친 단원별 문제 및 기출문제 풀이
- ▶ 각 단원별 문제를 통한 이론 내용 정리
- ▶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기출경향 파악 및 분석 (2002~2021학년도 기출문제)

[강의 교재]

- ▶ 매주 프린트물 제공

박문각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수상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특강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고, 전략을 세워 점수를 급등시키는 특강

단원별 모의고사 풀기 (OCR카드작성) >>>

쉬는 시간 >>>

해설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 14:30~17:00	세법	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교수진	정석진 하헌진	박성호 김백중	최성진 오시훈	고형석 신정환	김덕수 김정호	임의섭 박윤모

수강료 안내 (1개월 : 종합 30만원, 1차 20만원, 2차 25만원)

구분	종합	1차	2차	교재	온라인
신규생 10% 할인	54만원	36만원	45만원	시험지	선택한 교수님 시험일까지
수강생 (연회원, 올패스) 50% 할인	30만원	20만원	25만원		

*교수님별 강의 시간 및 교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총정리 & 추석 특강

합격을 보장하는 최종 마무리 특강

일자	시간	과목	교수
8월 8일(일)	09:40~18:00	세법	정석진/하헌진 교수
8월 15일(일)	09:40~18:00	학개론	김백중 교수
8월 22일(일)	09:40~18:00	공법	최성진 교수
9월 5일(일)	09:40~18:00	공시법	박윤모/임의섭 교수
9월 12일(일)	09:40~18:00	민법	김덕수/김정호 교수
9월 20일(월)	09:40~18:00	공법(추석특강 40+50선)	최성진 교수
9월 22일(수)	09:40~18:00	공법	오시훈 교수
10월 3일(일)	09:40~18:00	중개사법	신정환/고형석 교수

*수강료 : 각 10만원(수강생 50% 할인), 교재 별도, 온라인 강의 제공(시험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남학원 02)3476-3670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선정

2021 올패스 **로** **리**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합격!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과 함께라면

2021년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21년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20년 154문항 적중!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제공!



시험 직전
총 정리
LIVE특강 제공



온라인 수강 문의 02)3489-9500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학개론 최근 5년간 기출 훑어보기 - 홀수편(6)

| 편집 : 고시기획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8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 ②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③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 ④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 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8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가계 재산 ○ 노동자 소득
- 가계 소비 ○ 통화량
- 자본총량 ○ 신규주택 공급량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 ⑤ 5개

84. 다음은 거미집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보다 크면 ()이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크면 ()이다.

- ① ㄱ: 수렴형, ㄴ: 수렴형
- ② ㄱ: 수렴형, ㄴ: 발산형
- ③ ㄱ: 발산형, ㄴ: 수렴형
- ④ ㄱ: 발산형, ㄴ: 발산형
- ⑤ ㄱ: 발산형, ㄴ: 순환형

85.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 종합부동산세
-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ㅂ
-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 ⑤ ㄹ, ㅁ, ㅂ

86.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 ②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사항 여과과정이라 한다.
- ③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 ④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 ⑤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하려는 공기에서 비롯된다.

87. 다음 입지오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조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 ① ㄱ ② ㄱ, ㄴ
- ③ ㄴ, ㄷ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88.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 감소
- ㄷ.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ㅁ ④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89.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호방식의 일종이다.

90.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ㄹ
- ③ ㄴ→ㄷ→ㄱ→ㄹ ④ ㄷ→ㄴ→ㄹ→ㄱ
- ⑤ ㄹ→ㄷ→ㄴ→ㄹ

9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92.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지수(PI)는?(단, 연간 기분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1년 후 일시불의 현재가치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재가치수 0.90

- ① 1.15 ② 1.20
- ③ 1.25 ④ 1.30
- ⑤ 1.35

93.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m²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5,500만원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²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5%
- 매출액: 분양면적 m²당 30만원

- ① 1억 6,000만원 ② 1억 7,000만원
- ③ 1억 8,000만원 ④ 1억 9,000만원
- ⑤ 2억원

94.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ㄴ)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박문각 주택관리사

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2차

7~9월 최종 합격반



관계법규
강경구 교수



관계법규
남기원 교수



관리실무
박성진 교수



관리실무
김혁 교수



◆ 수강료 : 59만원(교재별도) ◆ 교재 : 핵심 요약집

	월	화	수	목	금
주간	관계법규(강)	관계법규(강)	관리실무(박)	-	관리실무(박)
야간	관계법규(남)	-	관계법규(남)	관리실무(김)	관리실무(김)

노량진학원 02)812-6616 | 온라인 02)3489-9500

- 대출금리: 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 연간 저당상수: 0.09
- 1회차 원금 상환액: 1,000만원
- 원리금 상환조건: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 단위 상환

- ① ㄱ: 연간 5.5%, ㄴ: 4,455만원
- ② ㄱ: 연간 6.0%, ㄴ: 1,260만원
- ③ ㄱ: 연간 6.0%, ㄴ: 1,455만원
- ④ ㄱ: 연간 6.5%, ㄴ: 1,065만원
- ⑤ ㄱ: 연간 6.5%, ㄴ: 1,260만원

9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 ②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 ③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9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ㄴ. 농지부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97.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요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 을(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① ㄱ: 시점수정, ㄴ: 현금흐름
- ② ㄱ: 시점수정, ㄴ: 투자가치
- ③ ㄱ: 사정보정, ㄴ: 복귀가치
- ④ ㄱ: 사정보정, ㄴ: 현금흐름
- ⑤ ㄱ: 사정보정, ㄴ: 투자가치

9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평가대상토지: X시 Y동 210번지, 대, 110㎡,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0. 9. 1.
- 거래사례
 - 소재지: X시 Y동 250번지
 - 지목 및 면적: 대, 120㎡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거래가격: 2억 4천만원
 - 거래시점: 2020. 2. 1.
 -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
- 지가변동률(2020. 2. 1~9. 1.): X시 사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3%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① 226,600,000원 ② 237,390,000원
- ③ 359,560,000원 ④ 283,156,000원
- ⑤ 285,516,000원

【 정답 】				
82. ⑤	83. ③	84. ②	85. ②	86. ①
87. ④	88. ③	89. ④	90. ③	91. ④
92. ③	93. ⑤	94. ④	95. ④	96. ③
97. ①	98. ②			

박문각 법무사

박문각 법무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년 연속
수석합격자
배출

2014 ~ 2020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수석·최연소 포함
124명 중 88명
합격자 배출

2020년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합격자 총
88명 중, 63명
온라인 강의 수강생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2차 온라인 첨삭
수강생
합격률 73.9%

2019년 2차 올패스
온라인첨삭 수강회원 기준

2022 박문각 법무사 올패스



2022년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재 구매 시 최대
30만 포인트 지급



쿠폰/봉투모의고사 등
혜택사항 제공

PMG 박문각

합격기준 박문각 공인중개사 무료 강의제공!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 문제집 / 실전모의고사
구매시 **무료 강의 쿠폰이 제공** 됩니다.



기본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실전모의고사 강의

박문각 무료 동영상 강의 시리즈

* 무료 쿠폰강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기본이론 강의 / 문제풀이 강의 / 실전모의고사 강의 / 교수별(25인) 필수이론

공무원

9급 공무원 기출해설강의(예정) : 과목별 최근 3~5개년간 기출문제 풀이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강의(예정)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 최신 기출문제 유형 분석



- 구매 페이지 접속
- ▼
- 무료강의 선택
- ▼
- 수강키 입력
- ▼
- 수강 신청하기

*과정별 수강키는 교재 구매시 또는 박문각 제휴 스터디카페 수강 지점에서 제공됩니다.(데스크 문의)

문의전화 | 02-6466-7506

박문각 공인중개사

1위 공인중개사 **박문각**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종로학원

7월 5일
개강



핵심요약반 / 단원별 모이고사반 / 문제풀이반

“합격하는 공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전 · 오후 · 야간반(2개월 완성)



실전 동형모이고사반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만
쑥~쑥 골라 실력 쑥~쑥 키우기!!

7월 5일(월) 개강!

동형모이고사반은 합격의 필수과정입니다.

출인원! 최종 일요하루특강

최종 핵심이론을
하루에 총정리한다!!

8월 8일(일) 개강!

거침없이 합격다지기!
합격의 맥을 짚는 해법을 제시한다!!

합격전략 설명회

날짜	요일	시간
7월 15일	목	오후 3시
7월 23일	금	
7월 29일	목	

(설명회 사전예약 홈페이지 참조)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일정

8/9(월)~8/13(금)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co.kr
학원에서 원서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박문각 편입

박문각편입 강남 단과학원

강남 대표1타 교수진 단과 입성 기념

특별청강 이벤트

문의 박문각편입 단과학원 02)6466-7416 위치 강남구 역삼로 1길 18 4층(강남역 신분당선 4번출구 / 2호선 2번출구)

청강참석시, 친구동행시, 타학학원에서 환승시 **50% 할인혜택!**

- ✓ 매주 효율적인 문제풀이
- ✓ 최강 교수진의 상세한 해설강의로 영역별 문제점 보완
- ✓ 개별 채점을 통한 실력 점검 및 학습계획 수립
- ✓ 개별 학습코칭으로 성적 및 학습관리



특별청강 참석자 전원 혜택!



2019 기출문제집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박문각편입 단과 학원과 함께 하세요!

강남 본관 02)508-4551

강남 단과 02)6466-7416

박문각 공무원

전 강 좌 무 제 한 수 강 에 캠 관 리 , 환 금 까 지 !

ALL NEW

2022

올패스

박문각 올패스 보기



#올패스 3기 7월 29일(목) 마감 이후 가격 인상!



**공무원 전과목
무제한 수강**



**매일 / 매주 / 매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업계
최초**



**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박문각 캠퍼터디**